BTS, 예술요원 대체복무 하면 활동 지속 가능…“난관 많아”

예술요원 제도 1973년 도입, 현역 복무 면제
바늘 구멍 뚫어야 예술체육요원 편입 가능해
작년 대체복무 개선방안서 대중문화는 빠져
형평성 문제·병역법 개정 등 여러 장벽 넘어야

아이돌그룹 방탄소년단(BTS)이 전 세계적 인기로 국위를 선양하면서 이들에게 병역 특례를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집권 여당에서도 나오고 있다.

여당이 거론하는 병역 특례는 ‘예술체육요원 대체복무’를 뜻하는 것으로 BTS의 대체복무가 가능해지려면 병역법 등이 반드시 개정돼야 한다.

예술체육요원이란 국위 선양과 문화 창달에 기여한 예술·체육 특기자가 군복무 대신 예술체육요원 복무를 하게 허락하는 제도로 1973년부터 도입됐다.

1973년 3월3일 ‘병역의무의 특례규제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예술·체육 분야가 신설됐다.

이후 국제대회 입상자 등 예술·체육 종사자들이 군 부대가 아닌 집에 머물며 자기 분야에 종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34개월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지휘·감독하에 병무청장이 정한 해당 분야에서 활동해야 하지만, 강제 징집을 피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실상 병역 면제에 가까운 조치였다.

실제로 예술체육요원은 해당 분야에서 종사하며 계속 기량을 향상시킬 수 있다.

예술요원은 대학(전문대학 및 대학원 포함)에서 예술분야 학과를 전공하거나 중학교 이상 학교에서 예술 분야 교직에 근무하면 된다.

국립이나 공립 예술단체에 속한 인원은 해당 단체에서 계속 활동하면 되고, 개별(창작) 활동자는 각 협회가 인정하는 개인발표나 전시회를 연 1회 이상 개최하면 된다.

체육요원은 대학(전문대학 및 대학원 포함)에서 체육분야 학과를 전공하거나 해당 종목에서 선수 활동을 하면 된다.

중학교 이상의 학교에서 체육지도 분야에 종사해도 된다.

또는 국공립기관 또는 기업체의 실업체육팀에서 해당 종목의 선수, 코치, 감독 등으로 종사하면 된다. 바둑요원의 경우 한국기원 소속 바둑기사로 활동해야 한다.

다만 예술체육요원에게는 봉사활동을 통한 사회 기여가 요구된다.

2015년부터 특기를 활용한 봉사활동 544시간이 의무화됐다.

예술체육요원들은 사회적 취약계층과 청소년, 미취학아동을 대상으로 공연, 강습(교육), 공익캠페인 등 다양한 형태의 봉사활동을 해야 한다. 544시간을 다 채울 때까지 복무기간이 연장된다.

체육요원으로 복무 중인 축구선수 손흥민 역시 경기가 없을 때 귀국해 틈틈이 강연 등을 하며 봉사활동 시간을 적립하고 있다.

병역 면제에 가까운 혜택인 만큼 예술체육요원이 될 기회는 각 분야 최고 기량 보유자에게만 주어진다.

연간 45명 안팎만 예술체육요원 편입 기회를 얻는다.

병역법 시행령을 보면 예술요원 편입 기준은 병무청장이 정하는 국제예술경연대회에서 2위 이상 입상자 중 입상 성적순으로 2명 이내 해당자, 병무청장이 정하는 국내예술경연대회(국악 등 국제대회가 없는 분야만 해당)에서 1위 입상자 중 입상성적이 가장 높은 자, 국가무형문화재 전수교육 이수자다.

체육 요원으로 편입하려면 올림픽 3위 이상 입상자와 아시아경기대회 1위 입상자여야만 한다.

BTS에게 예술요원 편입 기회를 주자는 의견은 이 대목에서 비롯됐다.

BTS가 국제예술경연대회나 올림픽에서 국위를 선양한 사람들 못지않게 큰 공로를 세웠기 때문이다.

각종 법률을 개정해서라도 BTS를 예술요원으로 편입시켜 음악활동을 지속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사실 현 정부는 BTS를 예술요원으로 편입시키려는 시도를 했었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정부 부처 합동으로 발표된 ‘병역 대체복무 제도 개선방안’에서 BTS 등 대중문화 예술인은 예술요원 편입 대상에서 빠졌다.

당시 정부는 전반적인 대체복무 감축 기조, 병역의무 이행 공정성·형평성 등을 고려해 대중문화 예술인을 대상에서 뺐다고 이유를 들었다.

클래식 음악·무용 콩쿠르의 경우 엄격한 선발 기준이 있지만 대중문화 분야는 아직 엄밀한 기준이 없다는 것이다.

미국 음악 전문 매체 빌보드 등에서 발표하는 순위는 대체복무의 근거로 삼기에 신뢰도가 부족하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당시 정부 관계자는 “전통음악은 콩쿠르도 있고 객관적 기준이 있는데 대중예술에는 그런 게 없다.

또 대체복무가 영화 등 분야로 한없이 확장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대체복무 대상으로) 고려하지 않았다”며 “대중문화 예술인의 기량이 군 복무로 현저히 영향을 받는 것도 아니라는 고려가 있었다.

BTS는 본인들이 대체복무를 거부했다고 하더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게다가 정부는 예술요원 편입 인정 대회를 축소하는 등 대체복무를 줄이는 추세다.

아울러 정부는 클래식 음악·무용계에만 지나치게 대체복무 기회가 편중된다는 비판을 고려해 편입 인정 대회를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있다.

클래식 음악·무용계의 몫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대중문화 예술인의 편입 기회를 확대하는 것은 형평성 측면에서도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나아가 대체복무 제도 자체가 축소 추세라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인구 감소로 병력 자원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대체복무 확대는 현역병 감소와 직결되는 측면이 있다.

결국 BTS가 예술요원으로 편입돼 현역 입영을 피하고 음악 활동을 이어가려면 여러 장벽을 뛰어넘어야 한다.

지금의 국회가 대체복무 축소 추세, 병역 자원 감소에 따른 현역 부족, 기성 문화예술계의 곱지 않은 시선, 대중문화인에 대한 뿌리 깊은 편견 등 장애물을 극복하고 BTS를 위한 병역법 개정을 이뤄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박찬호X이영표 뭉쳐 ‘축구야구말구’…내달 2일 첫방

일반인 생활체육 고수 찾아 떠나는 스포츠 로드 버라이어티 프로그램

대한민국 야구 레전드 박찬호와 축구 레전드 이영표가 뭉쳤다.

7일 KBS 측은 "박찬호, 이영표가 출연하는 KBS 2TV 새 예능 프로그램 '축구야구말구'가 오는 11월 2일 첫 방송된다"고 밝혔다.

'축구야구말구'는 전 국민 1인 1체육을 목표로 못하는 운동이 없다고 자부하는 박찬호, 이영표의 스포츠 로드 버라이어티 프로그램이다.

두 사람은 전국 방방곡곡에 숨어있는 일반인 생활 체육 고수를 찾아 떠나며, 운동선수 출신의 명예를 걸고 재야의 고수들과 한 치의 양보 없는 진검승부를 펼칠 예정이다.

특히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투 머치 토커' 박찬호와 축구경기 해설을 통해 논리정연한 말솜씨를 보여줬던 이영표의 입담 대결도 시청자들의 흥미를 끌 전망이다.

제작진은 "박찬호와 이영표 모두 끊임없는 연습과 강한 승부욕으로 각 종목에서 최정상에 오른 레전드인 만큼 벌써 남다른 의욕을 보이고 있다"며 "그동안 공개되지 않은 두 사람의 구기 종목 실력과 케미스트리에 많은 기대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뉴시스

머라이어 캐리, 데뷔 30주년 기념반 발매

'팝의 여왕' 머라이어 캐리의 데뷔 30주년 기념반 '더 레러티즈(The Rarities)'가 발매됐다고 6일 소니뮤직이 밝혔다.

이전에 공개된 적 없던 미공개 트랙들로 구성됐다. 캐리가 직접 선곡한 그녀의 베스트 트랙 15곡과 자신의 첫 일본 공연이었던 1996년 도쿄돔 공연 실황을 담은 라이브 음원 17곡이 수록됐다.

그 중 '세이브 더 데이(Save The Day)'는 지난 몇 년간 미완성 곡으로 남겨졌던 곡으로 캐리가 이번 앨범을 위해 완성한 신곡이다.

미국 힙합그룹 '푸지스'의 '킬링 미 소프틀리 위드 히스 송(Killing Me Softly with His Song)'을 샘플링했다. 오리지널 트랙의 로린 힐 보컬이 사용됐다.

與 지도부서 ‘블랙핑크’ 뮤비 지적

박성민 “간호사 성적대상화 심각히 고민해봐야”

블랙핑크 '러브식 걸즈' 뮤직비디오 속 장면.

걸그룹 블랙핑크가 뮤직비디오에서 간호사를 성적대상화 했다는 지적이 나온 가운데, 7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서 소속사에 책임있는 조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박성민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소속사에서는 간호사의 성적대상화 의도가 없었다고 했지만 당사자인 간호사들이 불편함을 느끼고 뮤비에 포함된 내용이 문제 될만한 일이라는 입장을 표명했기 때문에 소속사에서 책임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블랙핑크가 수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고 있어 영향력이 지대하다는 점에서, 뮤직비디오에서 이같이 간호사 성적대상화로 문제될 수 있는 장면이 포함된 건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할 문제"라고 주장했다.

박 최고위원은 또 아동 성적대상화로 논란이 된 게임 '아이들 프린세스'에 대해서도 "해당사는 게임사용 등급을 조정하겠다고 했으나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게임이 돼도 아동성적대상화 하는 내용이 담겼다는 본질적 문제의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부분의 모바일 게임은 자율규제 하에 자체 등급분류를 거친다. 게임위원회 내부에도 아동을 성적대상화하는 게임을 유통에서 원천배제하는 세부규제가 없다"며 규제 필요성을 시사했다.

지난달 16일 국내에 출시된 '아이들 프린세스'는 초등학생을 연상시키는 여아 캐릭터가 노출이 심한 옷을 입고 등장해 "만지고 싶어?"와 같은 부적절한 대사를 해 논란이 일었다.

24세의 박 최고위원은 당내에서 청년과 여성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청년 최고위원을 맡고 있다.

뉴이스트, ‘한글날’ 온라인서 한국문화 알립니다

한글·한국어 배우는 많은 외국인들, 온라인 상에서 한국문화 체험

그룹 ‘뉴이스트’가 오는 9일 ‘제 574돌 한글날’을 맞아 특별한 만남에 나선다.

7일 소속사 플레디스 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뉴이스트는 한글날에 열리는 ‘2020 세종학당 한글날 문화마당’에서 ‘한국홍보 전문가’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 세계 세종학당 학습자 7만 여명과 함께 온라인 문화 마당을 펼친다.

이번 문화마당’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세종학당재단이 주관, 세계 세종학당에서 한글과 한국어를 배우는 많은 외국인들이 온라인 상에서 한국 문화를 체험하는 행사다.

지난해 뉴이스트 아론과 백호가 한국 문화 유산 ‘한양도성’을 알리는 글로벌 캠페인에 참여하며 맺어진 서경덕 교수와의 인연으로 성사됐다.

뉴이스트는 한글날과 한국 문화를 알리기 위해 ‘완전체 출연’을 확정했다.

이날 행사는 오후 3시30분부터 세종학당 유튜브 채널을 통해 글로벌 생중계된다.

행사의 메인 무대를 장식하는 뉴이스트는 “한글날을 맞아 전세계 세종학당 학습자들과 소통하게 되어 매우 영광이다. 행사에 함께하는 만큼 K팝을 더 널리 알리도록 노력하겠다”는 소감을 전했다.